세미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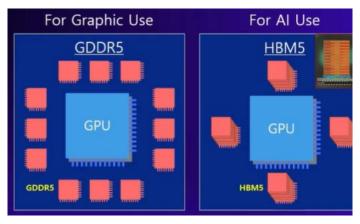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일 시
전기전자공학부	4	12191529	장준영	03/05
세미나 주제	반도체 기술 트렌드 & 산업 생태계 개요 (1)			

세미나 핵심내용

1) 목적: 반도체 기술 트렌드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반도체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한다.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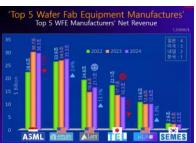
- 2125년을 예측해 보자면, "Smart Phoneless", "Autonomous", "Flying Car", "Humanouid" 등 최첨단 기술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이 중 "Autonomous" 같은 경우, 5단계부터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AI의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자면,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 있을 것이다. 제프리 힌턴은, "AI와 비교했을 때, 인간은 2살 어린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30년 이내에 인간을 파괴할 가능성은 20%에 달한다는 예측 자료도 존재한다.
- AI 반도체의 경우, HBM(메모리) GPU(로직) Interposer(연결고리) Package Sub으로 구성된다.
- GPU의 경우, 그래픽용으로 사용될 때는 GDDR5를 메모리로 사용한다. 그러나 AI용으로 사용할 경우, HBM5를 메모리로 사용한다.



-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All-Flash Array"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다.
-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는 300K ~ 500K의 개수의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Cooling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원래는 Air cooling 방식을 사용했으나, Liquid 쿨링으로 변경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DC 전력의 45%를 Cooling 용도로 사용한다.
- 2025년 반도체 공장은 전세계에 18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 중 한국에는 1개만 세워질 예정이다.
-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등 타 분야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팹리스의 경우, 미국&대만이 글로벌 Top10 중 9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패키징 분야의 경우, 대만(ASE, TSMC 등)과 중국(JCET, Tongfu)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았다. 특히, AI, 자율주행, 플라잉카, 휴머노이드 등 미래 첨단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팹리스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 및 첨단 공정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모든 공정에 걸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메모리 중심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